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애



한(恨)을 문화로 승화시킨 문화도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얼마 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화회를 참석하면서 1시간 거리의 에든버러에 다녀왔다. 비가 많은 곳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맑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반갑게 우리들을 맞아주었다. 문화의 힘이 곧 도시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에든버러에서 한 수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역민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총체적으로 담아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오랜 세월 투쟁을 해 왔으나, 명예혁명 후인 1707년에 양국의 의회가 통합되면서 정식으로 연합 왕국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인들의 잉글랜드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의식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99년에는 292년 만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부활하였고 독자적인 자치권, 사법제도, 보건제도, 교육제도 등을 가지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1568년 잉글랜드의 침공을 받아 왕국의 멸망은 물론 당시 메리여왕이 앉았던 옥자석을 빼앗겨 오늘날까지도 잉글랜드 왕의 즉위식 때 울러서는 발발침돌로 쓰이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문

화로 잉글랜드를 이기자!"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정신은 이러한 잉글랜드와의 오랜 투쟁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러한 한(恨)의 정서를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다. 중심 시가지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스코틀랜드의 역사적 인물인 윌리엄 스콧, 아담 스미스, 루이스 스티븐슨의 동상을 세웠으며, 에든버러 축제와 세계적인 미술작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잉글랜드에 잊혀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들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은 물론, 스카치 위스

키 같은 주류산업과 버버리 상표로 알려진 모직산업까지 함께 성장하여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새로운 현대적 가치와 접목시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든버러의 모습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창조도시, 문화도시는 21세기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창조와 원동력은 문화이며, 이제 문화는 과거의 이념이나 경제 개념을 넘어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

이해하고 전유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한다.

문화도시로 가는 길은 열린 마음을 필요로 한다. 이번 문화전담간담회 또한 한풀이가 아닌 스스로를 극복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과거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제 광주는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삶의 전반에서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찾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21세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모두가 상상과 포용, 희망과 열정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리하여 문화조성사업이 갈등적 지역주의를 문화로 승화시키고, 우리나라가 문화대국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과거의 소외와 저항의 역사에 묻혀 잊혀지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 무한한 발전해 나가기를... 그리하여 아시아문화중심에 광주가 있고, 호남의 발전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오직 함양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였던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전남대 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든버러로부터 배우자!

국외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이런 연유에서다. 문화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확장하고 삶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다중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문화조성사업이 5년째를 접어드는 이 시점에도 광주지역사회의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듯 보인다. 문화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합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담론 활동이 미약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각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화도시의 의미와 가치를 분할해

법조칼럼

정희일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기사는 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부적절한 언행의 대부분은 나이가 더 적은 판사가 연장자인 당사자에게 반말이나 막말을 했다는 것이거나, 당사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심지어 즐기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원의 법정언행 개선노력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판사들은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법정 모니터링제도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재판을 녹화하여 평가하거나 재판관 방청한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 등 법정언행개선을 위

를 하던 그 재판장은 법이론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되었고, 뛰어난 기억력으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기도 하였지만, 필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늘 인자한 표정으로 단정하게 법대자 앉아 있으면서 서투르거나 경박하지 않고 친절하게 당사자와 소통을 하던 모습이다.

재판장이 된 후 필자는 가능하면 미소를 잃지 않고 재판하려고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의 지나친 미소는 질실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들에게 자칫 비웃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가능한 무표정하면서도 경직되지 않게

판사들의 표정 관리

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광주지방법원 역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급년 상반기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받은 심리학 교수님의 강의 중 '소통의 메라비안(Mehrabian) 공식'에 관한 내용은 필자에게 법정언행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법관이 재판 중 말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은 7%에 불과하고, 38%의 소통은 법관이 사용하는 목소리, 어투나 어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55%의 소통은 복장이나 시선, 몸짓, 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판사가 하는 말의 내용 보다는 판사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인격적으로 당사자를 대하고 있다는 신체적 표현이 당사자와 판사의 소통을 좌우한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판사가 되기 전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공판감사로서 판사들의 재판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고, 몰 모넬로 삼을만한 재판장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돌아보면 모범이 될 만한 재판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여 범부(凡夫)로 태어난 필자에게 많은 시련을 주고, 깨달음과 반성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자는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어떠한 경우에도 침착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다짐하지만, 금요일 재판에서 담당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큰소리라도 내고 나면 주말 동안 때때로 그 장면이 머리에 스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한다.

보통 재판장들은 재판전날 판결문을 마무리하고 신간과 속행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분주한 날을 보내야 하고, 시간이 모자라 야근까지 하게 되면 좋은 컨디션으로 재판에 임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특히 야근을 심하게 한 다음날의 재판에서 더욱 감정조절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직도 필자는 재판정에 입장하기 전 고민한다. 재판장에서 항상 무표정하게 있어야 할까? 아니면 가볍게 미소를 짓기도 하는 것이 좋을까?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박희종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가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중량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겨울철 축사시설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사 구조물은 가건물 형태로 짓는 경우가 많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단열시공을 하게 된다. 전기설비의 경우 분전반에서 조명등이나 모터까지 배선은 보통 플라스틱 파이프 속에 시설하거나 일부는 비닐전선이나 코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햇빛에 의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전선 피복에 서서히 틈새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누전이 되거나 발화하기도 한다.

축사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급적 분전반은 양돈장내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따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개폐기나 차단기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분전반의 틈새나 구멍을 막아주도록 한다. 분전반 틈새나 구멍을 막아주면 먼지뿐만 아니라 쥐의 분전반 내 출입을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한 개폐기 뚜껑은 반드시 덮어주도록

축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전반을 양돈장에 설치하면 분전반 안에 많은 먼지가 들어가게 되고, 분전반 내에 설치된 개폐기나 차단기 내부에 먼지가 쌓여 접촉 불량 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또 양돈장 내에는 쥐가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 할 수 있다. 쥐들은 습성상 날카로운 이빨로 굵아 구멍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케이블이나, 코드선, 전선 등을 쥐가 갉아 먹으면 전선 등의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나 합선이 돼 화재 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양돈장 내에는 어린 돼지들의 보온을 위해 백열등을 이용한 보온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나 백열전구는 형광등에 비해 열을 많이 발산하고 인화점이 낮은 스티로폼과 같은 보온재와 근접하거나 접촉하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새끼들의 보온을 위해 한정된 좁은 공간에 수백와트의 백열등을 켜놓게 되면, 장시간 경과에 따라 백열전구 열이 축적되어 발화되는 경우도 있다.

배선 또는 개폐기 콘센트 등의 배선 기구나 환풍기 등 전동 기계기구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설비 자체가 노후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즉 전선을 배관안에 넣지 않고 옥외에 노출된 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백열전구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티로폼과 같은 보온재와 충분히 이격시키고 금속재질 등으로 전구를 둘러싸도록 전구의 파손에도 대비한다. 또한 새끼 돼지보온용 조명등은 주위의 지푸라기와 같은 인화성 물건의 접촉에 대비하여 시설하고, 장시간 사용시 열의 축적에 의해 발화온도를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쥐가 전선을 갉지 못하도록 전선은 금속관이나 플라스틱 전선관에 넣어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풍기 등에 쌓인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가동시 소리가 심하게 나는지, 열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상태가 나쁜 것은 교환해 주도록 한다.

모든 사고가 그러하듯이 전기사고도 예고 없다. 다만 전기는 타분야와 달리 좀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시킬 경우에는 전기기술자들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돈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볼 것을 권고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시설

지원 편중 심한 수출입은행 '국책은행' 맞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지방기업 특히 호남기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대기업과 수도권·영남기업에 편중된 반면 호남기업은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극히 낮고 그나마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자급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게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임에도 이를 저버린 수출입은행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 기획재정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배포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지난 2008년 71.2%에서 2009년 65.1%, 올 9월 현재 57.4%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지방기업의 수출 비중은 70%가 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8월 현재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13.3%에 불과해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행태를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역 간 편중이다. 지방어선

지원액의 86% 이상이 영남권에 집중된 반면 호남기업에 대한 비중은 2008년 9.6%, 지난해 7.9%, 올 9월 현재 7.2%로 영남권 지원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 편중은 유망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하드 챔피언' 112개 기업 선정에서도 두드러진다. 이 기업 가운데 수도권(50.4%)과 영남(29.7%) 기업이 8할 이상을 차지했다. 호남기업은 단 7개로 6.3%에 그쳤다.

이 같은 수출입은행의 지원 행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수출기업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수출입은행의 지원권 중 원인을 찾아 반드시 개선해 국책은행의 본분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외면하는 광주시 교통정책

오는 26일부터 8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2010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 광주에 사는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다고 한다. 46개국 296명의 세계적인 장애인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지만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태부족해 정류장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버스에 타더라도 외부인의 도움 없이는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 시내 저상버스는 모두 62대로 전체 시내버스 910대의 6.81%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부 노선에만 저상버스가 배치돼 있고, 배차간격 정보가 전혀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장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멈춘 뒤에도 운전기사가 차량과 정류장 사이에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며, 탑승한 뒤에도 안전벨트를 매줘야 한다. 또 저상버스보다 간편한 장애인 이동

클락시는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지만 오전 9시 이전에 모두 끝나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광주지역에 지체 장애인이 1만7500여명에 달하지만 장애인 클락시는 단 3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체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의 턱도 여전히 높고, 노면의 요철이 심해 휠체어를 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지역에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자 공동 책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정책이 있어 저상버스와 이동클락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대회기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배려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뒤따라야 한다. 민주, 평화, 인권 의 도시, 광주에 걸맞게 말이다.

無等鼓

패독(Paddock)은 포플러원(F1) 서킷 트랙 안쪽에 경주차(머신) 정비와 검차, 보관 등을 위해 마련한 구역에 가리킨다.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경우 메인 그랜드스탠드 건너편, 타이어 교체와 급유, 머신 세팅 등이 이뤄지는 피트(Pit) 뒤편에 위치해 있다.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되는 특별 구역이다.

원래는 경마 용어였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 관망객들이 출전한 말의 건강상태 등을 관찰해 우승 예상마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람대 주변에 설치한 예시장(豫示場)을 지칭한다.

F1에서도 마치 경주마를 둘러보듯 피트와 서킷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한 VIP 고객인 '패독 클럽' 관람객이 우선 대상이다.

영암 서킷의 패독 클럽은 패독 2층에 100여 석 규모로 마련됐다. '지상 최대의 스피드 축제'를 즐기기에 최고 명당으로, '스카이 박스'라고도 불린다. 입장료만 500만 원에 이른다 고 한다. 일

반적으로 각 팀이 위치할 곳의 2층을 후원자들이 패독 클럽으로 사용하는데, 내부에는 경기를 중계하는 TV와 인터넷 등 각종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고 급 식사가 제공된다.

패독 클럽이 눈길을 끄는 것은 주요 대기업 후스나 세계 각국에서 온 정계, 관계, 체육계 인사들이 경기를 관람하며 비즈니스와 현안을 논의하는 사교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에 패독 클럽을 찾은 국내외 VIP는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최초의 국제자동차경주장이 들어선 영암군 삼호읍 삼호리는 이제 세계가 주목



패독 클럽

하는 'F1 도시'의 대열에 합류했지만 아직 서킷 외에는 주변시설이 없어 허허벌판의 간척지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빨리 배후단지개발 사업이 본격화돼 국제적인 모터스포츠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F1 비즈니스 무대인 '패독 클럽'을 적극 활용해야겠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독도문제, 일시적 감정보다 지속적 교육 통해 대응해야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는 범비 같다'는 말이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 주장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은 끓는 냄비처럼 분노하고 폭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독도가 지니는 생태학적 가치는 물론 역사적 상징성으로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된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 등 감정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주장이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전문적인 인재육성을 통해 일본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임주희·광주 송덕고 2년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